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프랑크푸르트 선언 25주년

글로벌 일류넘어 ‘초격차’... 삼성의 혁신은 계속된다



작년부터 ‘비상경영 체제’ 돌입에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내

이재용, 해외출장만 3차례 떠나 해외서 ‘이건희식’ 혁신경영 시도



2011년 4월 삼성 서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 이인희 삼성 회장(왼쪽)과 이재용 당시 삼성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이 7일로 이인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선언’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조용한 변혁’에 들어간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이인희 회장의 ‘일갈’ 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은 이후 경영의 중심을 양(量)이 아닌 질(質)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삼성’의 밑거름이 됐다. 80년 삼성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는 이 선언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그렇지만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7일 별다른 기념행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내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검찰수사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은 2014년 이 회장의 입원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날 신경영 기념식을 열었다. 이후 2015년에는 사내 방송을 통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였고, 2016년에는 사내 인트라넷에 이 회장의 어록을 띄웠다.

그러나 지난해 이 회장의 와병에 이차

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수감까지 겪으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도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조촐한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올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에서는 삼성이 주력 계열사의 전반적 경영실적 호조와 글로벌 입지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만 보면 창업 이후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회장의 오랜 와병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란 ‘기본 악재’에다 노조 와해 의혹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재벌개혁 압박,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이슈와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대규모 기념행사와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 등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던 20주년(2013년)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선언 ‘사반세기’를 맞아 뜻을 되새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축 행사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논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만 10여 차례 받았다. 삼성은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맞설 수도 없고 맞서지도 않을 것”이라는 계열사 고위 임원의 말에서 내부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지원 핵심사업 중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선봉장’으로 나서 해외에서 ‘이건희식’의 공격적

혁신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초 석방 이후 해외 출장만 3차례나 떠났다. 국내 악재에는 위축된 모습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통상 압박 등 해외 도전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에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잇따라 개소한 데 이어 대만과 카자흐스탄에 각각 20번째와 21번째 ‘삼성 뉴스룸’을 개설했고, 해외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 반도체 신기술 로드맵을 선보였다. 지난달 말 최고 혁신책임자(CIO) 직책을 신설하고 산하 혁신조직인 삼성넥스트의 데이비드 은 사장을 임명한 것과 맞물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최근 행보는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면서 “이재용식 신경영은 ‘글로벌 초일류’를 넘어 ‘글로벌 초격차’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서 실적과 성과가 우선이겠지만 비관 여론 등에 대한 자성을 토대로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거듭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공매도 논란 재점화... 靑 국민청원 봇물

일부 주식 ‘무차입 공매도’ 정황 금감원, 골드만삭스 공매도 조사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또다시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 등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 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해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서 결제를 마쳤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무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무차입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관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해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업틱블’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11,934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시작	2018-06-04	청원마감	2018-07-04	청원인	naver-***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조사한다. 업틱블은 공매도 거래 시 시장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약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매도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주가하락을 유도한 의도적인 무차입공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차입공매도’ 논란을 촉발시킨 삼성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예상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일부 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논의는 오는 21일께 시작하고, 최종 징계 조치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매도 개선안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

매도 관련 청원만 1600건에 달한다. 불법적인 공매도를 검출할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매도는 개인에게 여전히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손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햄버거 오찬대담’ 성사에 주목

>> 1면 ‘북미정상회담 본궤도’서 계속

트럼프, 상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듯 마리나베이 기념촬영 여부도 관심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상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 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상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세인트리지스 호텔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외교가에선 회담의 세부 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 인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

심탄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서 언급한 마리나 베이 기념촬영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에서 두 정상 기념촬영 계획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대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6월 애플랜드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례에 따라 회담은 오전에는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오후에는 확대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사이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호 기자 bada@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 차량이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을 통과해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